

獸醫權益伸長の 積極策

京畿道獸醫師會常務理事

鄭 益 鎔

獸醫를 賤視하던 封建선비들의 潛形조차도 이제 찾
아볼수 없건만 왜 아직도 이땅 獸醫師들은 諸般面에 있
어서 先進國家에서의 獸醫師들이 確保하고있는 어엿한
社會的地位를 제대로 享有하지 못하고있을까.

아직도 後進性을 完全히 脫皮치 못한 우리社會의 客
觀的要因에도 서글픈 理由를 찾기도하겠으나 따지고보
면 그보다더 深刻한 盲點은 "우리 스스로가 爭取하여
야한다"는 積極的인 主觀的要因에 等閑하였기때문
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의 慾望은 公醫의 月手當과 公獸醫의 月手當을
지금當場 같은 베이스로해달라는 그런 엄청난(?)것도
아니다.

日前 一線市郡獸醫業務에 從事하는 同志들이 자리를
같이 한會合에서 어떤 熱氣된 小批獸醫한분이 單純히
弄으로만 들어넘기기 困難한 말투로 나에게 『우리들
모두 獸醫師免許證을 모아서 返還해버립시다』라고 은
근히 抗議調다.

그분의 不滿의 焦點을 대충은 짐작할수 있었으나 動
議의 規模가 하두 엄청난기에 나도 판단을 부리면서
왜냐고 다잡아 물어보았다.

이번에 公務員職制變更에 있어 市郡職員으로 年次나
勸續年數에 있어 同一한에도 不拘하고 國民學校乃至 農
高等의 卒業生도 技士補로 獸醫師免許證을 가진 사람
도 技士補니 이래서야 嚴然한 國家考試를 치러서 堂堂
한 免許證을 所持한 보람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런 人事措置上的 어긋함은 또 훨씬 약과라할지 아
주 資格上的 自負를 뿌리채 뽑아쓰러트리는 事例를 어
느 同志에게서 抗議받았다.

農協의 預託牛가 斃死했을 境遇에 이를 檢案함에 있
어 警察官이 立會치않은 檢案書는 認定치 않기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래서야 어디 國家考試를 치르고받은
免許證이나 農林長官이 任命한 公獸醫師들의 體面이
서느냐는 것이다.

論理의 飛躍까지는 아니라할지라도 따지고 따지던
結局은 누워서 침발기式的 不信이라고도 할수있는 일
이다.

百步를 물러서서 우리들의 못난것을 自嘆하면서 끝
쳐꿀켜 참으려해도 여간해서는 서운함이 가지지를 안
는다.

自負心이 大端한 大學을 갖나온 熱血獸醫쯤이면 팔
을 걷어부치고 憤慨할판이요 끈덕진 사람이면 子孫代
대로 아예 獸醫는하지말라고 遺言을 할른지도모를 일
이다.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내귀에 들려주는 意圖은 獸
醫師會에서는 이런것도 모른체 하고앉아서 드대체 무
얼하느냐고 사때질을 하는셈으로 나는 알고있다.

그렇다! 獸醫師의 社會的地位向上 即權益擁護는 獸
醫師會의 存立目的의 가장 基本的인 問題가 되어야하
기 때문에 이화살은 일단 아무말없이 내가 받아드려놓
고 봐야할 일이었다.

晩時之嘆은 있으며 獸醫師會의 立場으로써는 會員들
의 이러한 呼訴를 가장 適切한 方法으로 當局에 時時
刻刻으로 反映시켜 可能的 積極的인 成果를 摸索하러니와
설혹 이런일들이 獸醫師會의 몇몇 有力任員과 當局
과의 折衷으로 우리들의 所望하는 方向으로의 成果를
어느程度 見출한다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런 制限된 事務
的이며 消極的인 方法으로만 우리들의 社會的地位向上
을 꾀하고 其權威를 없들려 절발기式으로 세우려하여
서는 되지 않으며 또 될수도 없는 것이다.

勿論 國家政策이 大幅的으로 獸醫重用的 方向으로
轉換하질것 急速히 發展을 보아야할것이 先行條件인
것은 두말할 餘地가 없거니와 우리의 環境이 飛躍을 許
與치 못하는 여러 制約性을 띠고있는 現實속에서 完全
無欠한 解決을 一時에 노리려고하는것 보다는 우리들
自身の 밀바닥으로부터의 새覺醒과 堅實性있는 實踐力
이 旋風처럼 이러나야 할줄안다.

그렇기 爲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會員들이 權
利를 主張하기에 앞서 義務를 어김없이 履行할줄아는
사람들이되자는 것이다.

萬一 自身の 無能이나 利己獨善에는 고스라니 커
－덴을 쳐두고 남의힘만 들기 좋아하는 格으로 우리의 人
格 및 理論技術面에서의 꾸준한 努力前進없이 社會에 向
해 높은 處 遇만 동경하려하고 自身の 會에는 아주 外
面을 한채 翕從한듯 自負心이 없는 사람이 會를 向해서는
權益을 擁護치 못해준다고 怨望하는 따위의 우리 周邊의
矛盾부터 먼저 克服하자는 것이다.

切實하지는 못할는지 모르나 생각에 떠오르는 몇가
지 矛盾된 實例들을 들추어보기로하자.

① 指導官署에 있는 獸醫師와 在野獸醫師의 境遇.
어떤 面事務所에 大學을 나온 獸醫師가 面職員으로 就任하고있었다.

其管内에 어떤 獸醫師가 開業을했다.

그는 法대로 郡을 經由하여 地方長官에게 申告도 提出했지만 面을 通하여 申告가 없었다고 호통이다.

하도 어이가없어 既히 所定法대로 申告했노라고 했더니 그래도 또 나타나서 面을 通해야한다고 우긴다. 法과는 아주 등진 無知이다.

끝내는 面의 社會係擔任이 警察官을 帶同하고 나서 無許可診療業이라고 藥장에다가 모조리 封緘을해놓고 面으로 出頭하라는것이다.

開業獸醫는 面事務所內에서 法令集을 펼쳐놓고 所定法에 依한 申告體系를 解說하고 保社部所管이 아닌 農林部所管이라는 것을 明白히하여 社會係職員의 錯覺을 깨우려주느라고 진땀을 내건만 옆에 서성거리는 獸醫師인 面職員은 좋은 구경거리보듯하고 있었다.

이래서야 同志愛도 同志愛러니와 獸醫師라는 이름에 누가 이처럼 동질을 할수있을것인가.

이것은 한낱 조그마한 官僚의特權意識을 獸醫師라는 共通的矜持보다 優位에 놓으려는 自繩自縛의 典形의例이다.

② 開業地域의 道義的解釋

어떤 道獸醫師會로부터의 法的乃至는 行政的解釋을 要望하는 中央에의 質疑書에 簡單히 적혀있는 內容이라 좀더 仔細한 經緯顛末을 알기 前에는 速斷禁物이지만 거기 記錄된것대로만 한다면 曲折이야 어떠한 어떤 한쪽이 公獸醫發令까지받고 開設한 同一家屋에 언다라서 開業한 다른한분의 경우는 人醫業界의 實情과는 判異한 우리 社會의 現實을 規準삼을때 競業挑戰이 程度가 좀 지나치지 않았나하는 느낌과 수업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尖銳化된 生存競爭의 말뜻을모르는 배도 아니 건만 어쩐지 殺伐한 生活感覺을 느끼게 되는것은 非但 나한사람의 일일가.

아무튼 部外人士들이 볼때 獸醫師들은 自由競爭의 尖端을 걸고있는 開化된사람들이라고 尊敬할理는 萬無할데니까---

③ 酬價規定遵守問題

너무 過大한 診療費를 畜主에 負擔시켜서 物議를 이끄는것이 결코 우리 獸醫師들의 權威를 正比例로 지켜올리는것이 될수는 없지만 規定以下로 그것도 目前

의 競業에 血眼이된 나머지 規定을 어기는 行動을 敢行하는것은 分明히 스스로가 共同權益을 짓밟는 獸醫師共同的 敵이 아닐수없다.

例로 어떤 公職에 있는 獸醫師가 時間外開業을해놓고 싸게받아 顧客을 끄러모으는 구질구질한 方法이라든가 一定한 開業施設도없이 남의 病院의 助手비슷한 ალ송 달송한 名分으로 診療가방을들고 遊擊隊처럼 畜主들집으로 出沒하면서 100환도好 200환도好 2式으로 豫防注射를 맞치라고 땀이 나도록 졸라대는 이른바 求乞診療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정말 얼굴이 화끈거린다.

이외에도 이런 大小의 類型은 視野를 좀 넓히면 얼마든지 즐비하리라 이러한 모든 矛盾들이 모두 個人의 利益에만 管見의으로 沒頭하는 나머지 全體의인 社會的權威向上을 피하여 鞏固한 自動的權益伸長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積極的展望性的 貧固으로부터 招來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再三 力說하고싶은 것은 우리 全國會員들이 會에對한 無關心派가 될것이나 아니라 會의 育成發展을 위한 基本的義務들을 먼저 어김없이 치르고 總會및 機關紙等屬을 通한 會員相互間의 意思疏通을 좀더 積極化시켜 相互理解를 增進시키고 經驗을 普遍化하여 우리의 共通된 權益에 敏感한 知性人이 되어야하지않겠는가.

이러한 土臺위에서 中央會나 地方會들에서는 會員들의 權益伸長을 위한 모든 事業活動의 훌륭한 參謀部로서의 使命을 다하기위하여 恒常 創意를 기우리고 熱을 다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今般 大韓獸醫師會는 數次的 理事會나 總會를 거쳐서 母法乃至定款修正을 피하여 오늘 날까지 財政難으로 因해 權益의 代辦機關인 會가 機能發揮를 제대로 못하였던 實情에 革期的轉換을 마련키 위해 會費納付의 義務感을 強調하는 措置들을 取하기로하였고 會運營의 民主化를 더욱 擴大強化하여 廣範한 會員層의 意思反映을 目的으로 總會構成을 代議員制로 고치기로하였다.

그리고 또한 從前에 全國的으로 統一性이 欠해있던 酬價規定을 輻에 彈性性이 있도록 새로히 作成하여 全國的인 統一性을 圖謀하였다.

이모든 一大革新된 事業들이 形式化되지않고 우리 獸醫權益伸長에의 實効를 견울수있느냐 없느냐는 實로 우리 全體會員의 革命的覺醒에 달렸다.